

고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를 통해 본 소가야권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 대형 봉토분과 분구묘를 중심으로 -

정 인 태**

〈목 차〉

- I. 머리말
- II. 소가야권 고분 축조공정과 유형 설정
- III. 축조공정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
- IV. 소가야권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 V. 맺음말

국문요약

소가야권의 3대 고분군인 산청 중촌리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며 독특한 고분문화를 전개해 간다.

산청 중촌리고분군은 목곽묘 단계에서 대가야계 위세품인 단봉문환두대도가 출토되고, 봉토분 축조단계에서는 제방상성토기법, 호석, 다량의 석재 성토재 등 가야권에서 가장 먼저 봉토분이 축조되는 대가야 고분 축조기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삼가고분군 묘제와 봉토 축조, 대가야 석실 축조기법의 관련 아래 오랜 기간 고분군을 조영해왔으며, 남강 수계를 통한 대가야와 소가야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천 삼가고분군은 소가야권 고분군 중 가장 오랜기간 가장 많은 봉토분이 축조된 고분군이다. 다곽식의 구조로 봉토를 되파서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하거나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봉토를 확대해 나가는 독특한 축조방식을 이용하였다.

* 본고는 2018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2018년 가야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논지 전개 방법을 전면 수정하고 삼가 가-24호분, 중촌리 3호분 등 최신 조사성적을 반영하였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고분 배치의 매장규범은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에 영향을 주었고, 봉토 증축 방식은 합천 창리고분군과 대가야 최고 지배집단 묘역인 지산동고분군의 하위 고분 축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봉토 축조기법에서는 대구회석 축, 목가구구조 등 아라가야 고분 축조기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가장 외곽요소가 강한 곳으로 분구묘(통영 남평리 10호분), 배장묘 배치(삼가고분군), 잠형주구·1B호분 석실(왜), 표형분(신라), 마구·토기(대가야·왜·신라)의 영향이 확인된다. 축조기법의 특징으로는 점토블럭을 성토재와 구획재로 널리 사용하였으며 묘역정지 시 전면에 걸쳐 점질토를 깔거나 선대 무덤을 파괴하지 않고 봉토를 축조하는 매장풍습이 보인다.

주제어 : 소가야, 축조기법, 매장의례, 매장규범, 다곽식

I. 머리말

소가야는 현재까지 고고학적 성과로 볼 때 고성, 통영 등 남해안지역과 진주, 합천, 산청 등 서부경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소국 집단 또는 연맹체로 인식되고 있다. 대가야-지산동고분군, 금관가야-대성동고분군, 아라가야-말이산고분군, 비화가야-교동·송현동고분군, 다라국-옥전고분군 등 주변 가야 소국은 소국 중심지로 비정되는 지역에 2~3세기에 걸쳐 대형분이 축조되는 중심고분군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가야권¹⁾의 대형분이 있는 고분군은 넓은 지역에 걸쳐 여러 곳 조성되고 있으며 각 고분군마다 축조기법과 매장의례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김해를 제외한 주변 가야 소국의 대형분은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봉분을 쌓는 ‘봉토분’이라 할 수 있으나, 소가야권에서는 ‘봉토분’과 함께 봉분을 먼저 만들고 매장주체부가 후축되는 ‘분구묘’가 혼재하고 있다.

가야고분 연구는 주로 묘제의 형식과 토기, 갑주, 마구 등 개별 유물의 형식

1) ‘소가야권’은 삼각형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등 소가야양식 토기문화 등 다른 가야권과 구별되는 물질문화가 확인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시기적으로는 4~6세기로 설정할 수 있다. 소가야양식 토기의 출토 비중이 높은 고분군이 있는 지역은 고성, 통영, 진주, 사천, 산청, 합천 등이며,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대가야, 신라, 왜계 토기 또는 고분 축조기법이 함께 확인되는 지역은 거제, 마산, 의령, 하동, 함안 등이 있다.

분류에 치중되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대형 봉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매장주체부 중심 조사에서 탈피, 다양한 조사방법에 의한 봉토 조사가 진행되면서 고분 축조기술과 방법, 매장의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확보되고 있다.

최근 가야 다곽식 고분 연구²⁾에서 합천 삼가고분군과 고성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등 소가야권 고분군과 순장곽이 조성되는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함께 검토하여 석곽 간 피장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 묘제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피장자를 대상으로 한 관점은 좋은 시도이나, 석곽 규모와 출토유물만을 근거로만 제시한 점, 순장과 배장이라는 전혀 다른 매장관념을 배제한 점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합천 삼가고분군에 대한 연구³⁾에서는 2009년 이후 조사가 집중된 삼가고분군의 묘제와 유물 변화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지만, 봉분을 덧붙여 축조하는 현상에 대한 분류는 빠져 있다.

본고는 소가야권 고분 특히, 봉토분과 분구묘⁴⁾를 위계유형으로 구분하고, 축조공정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 검토를 통해 각 고분군의 특징 및 축조집단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崔榮垓, 『加耶 多櫛式 古墳 研究』, 慶尙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17.

3) 申強浩, 『陝川 三嘉 古墳群에 대한 研究』, 慶尙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18.

4) 주요 소가야권 고분군의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고의 검토 대상은 음영으로 표시한 고분을 중심으로 한다.

고분군명	고분명	조사연도	조사기관	비고
고성 송학동고분군	1A·1B·1C·1D(석곽묘)·1E(목곽묘)호분	1999~2001	동아대학교박물관	분구묘
	기월리 1호분	201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분구묘
고성 내산리고분군	8호분·63호분	1997~9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분구묘
	34·1호분·21·28·62호분	1999~2001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분구묘, 봉토분
	60·64·65호분	200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36호분·37호분	200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성 울대리고분군	2호분	1989	국립진주박물관	분구묘
고성 연당리고분군	14·18·23호분·20호분	1991~92	경남대학교박물관	봉토분
합천 삼가고분군	1~9호분	1981	동아대학교	봉토분
	국도33호선 I-M1~M13호분, III·IV구간	2009~11	동서문물연구원	봉토분
	국도33호선 II-M1~M15호분	2009~1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봉토분
	가지구 24호분	201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봉토분
산청 증촌리 고분군	1·3호분(목곽묘 3기)·21·50·94호분	1982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
	M1·5호분	2013~1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봉토분
	1구역 1~6호분(석곽묘)·2구역 1·2호분, 2구역 3호분	2017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봉토분
통영 남평리유적	10호분	2014	동서문물연구원	분구묘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	수정봉2호분·3호분, 옥봉7호분	1910	關野貞	?

II. 소가야권 고분 축조공정과 유형 설정

우리가 고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첫째는 매장주체부를 만들고 봉토를 쌓아 올리는 기술과 방법, 즉 축조기법과, 둘째는 시신·부장품 안치방법(묘제) 및 고분 축조과정과 축조 완료 후 장지에서 행해지는 의례, 즉 매장의례로 구분할 수 있다.⁵⁾ 이들 정보의 분석을 통해 고분 축조집단의 고분문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집단의 고유성을 상징하는 고분문화는 집단의 정치·사회·경제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⁶⁾ 또 다른 집단의 고분문화와의 비교는 교섭, 교류, 이주, 정복 등 집단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문헌자료가 극히 부족한 ‘가야’의 연구에 대체 불가능한 자료인 것이다.

본고의 검토 대상인 소가야권 봉토분과 분구묘는 이전과 달리 무덤 위에 흙을 덮거나, 흙을 덮고 무덤을 만드는 인공구조물이다. 여러 단계에 의해 만들어지며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고분을 분류하는 속성을 검토할 때 축조공정별로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인 분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소가야권 고분의 축조공정은 봉토분과 분구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봉토분의 축조공정은 ‘묘역 선정 → 묘역 조성 / 묘광 굴착 / (주구 굴착) → 매장주체부 축조 / (하부봉토 축조) / (호석 설치) → 피장자·부장품 안치 → 매장주체부 복개·밀봉 → 상부봉토 조성 → 피복·완성’ 순서이다.

분구묘의 축조공정은 ‘묘역 선정 → 묘역 조성 / (주구 굴착) → 분구 조성 / (호석 설치) → 묘광 굴착 → 매장주체부 축조 → 피장자·부장품 안치 → 매장주체부 복개·밀봉 → 봉토 조성 → 피복·완성’ 순서이다. 두 경우에서 주구와 호석, 하부봉토를 조성하지 않거나, 공정을 달리하여 조성되기도 한다.

한편 각 공정에서 보이는 축조기법과 매장의례의 모습은 위계성, 시간성,

5) 매장의례는 장송의례(장례)와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장송의례는 피장자(망자)가 사망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무덤에 매장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구분된다. 즉 매장의례는 장송의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사의례(제의)는 장송의례가 마친 후 망자의 사후 세계 안녕을 빌고 그 공적을 기리는 의례로, 성묘 등 피장자가 묻힌 곳에서 행해지는 제사의례도 포함된다.

6) 고분 축조기법의 여러 속성 중 일부는 축조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 또는 공인집단이 가진 기술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야 고분이 군집을 이루며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점, 고분군 내에서도 위계와 시기에 따라 속성의 변화는 있지만 묘제 등 계속 유지되는 속성이 뚜렷한 점 등을 볼 때, 만약 공인 또는 공인집단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고분군의 무덤에 피장되는 집단 내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고분을 축조하는 것에도 고분 피장자의 가족 또는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분을 이루는 속성은 고분군에 피장되는 ‘집단의 매장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간성을 보여주는데, 속성이 한 가지 특성을 가지기도 하며, 여러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봉토와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위계성을, 매장주체부의 장폭비, 묘광의 깊이 또는 매장주체부의 수직적 위치 등은 시간성을, 성토재료 등은 공간성을 나타내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또 분구묘의 경우 후축 무덤의 위치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다 보여주며, 부장공간 구분, 부장유물 구성은 위계성과 시간성을 보여주는 속성이다.

본고에서는 봉토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속성인 위계성⁷⁾으로 유형을 설정하고 축조기법과 매장의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계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봉분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직경 28m 이상을 I 유형, 직경 16~27m를 II 유형, 직경 15m 이하를 III 유형으로 설정한다.⁸⁾

표 1. 소가야권 봉토분·분구묘의 유형 설정

시 기	지 역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 기 (5C 중엽 ~5C 후엽)	산청(중촌)		중촌리 M1호분	중촌리 3호분
	합천(삼가)			삼가II-M1호분, 삼가II-M4호분
	고성(내륙)·진주			
	고성(해안)·통영			남평리 10호분
II 기 (5C 후엽 ~6C 전엽)	산청(중촌)			중촌리 5호분
	합천(삼가)		삼가 가-24호분	삼가 I-M3호분 삼가 I-M7호분 삼가 I-M10호분
	고성(내륙)·진주			연당리 14호분 연당리 23호분
	고성(해안)	송학동 1A호분	기월리 1호분, 내산리 8호분	
III 기 (6C 전엽 ~6C 중엽)	산청(중촌)		중촌리 1·3호 석실(신라대)	
	합천(삼가)		삼가 1호분	
	고성(내륙)·진주		수정봉 2호분	연당리 18호분
	고성(해안)·통영	송학동 1B호분	내산리 34호분 내산리 1호분 울대리 2호분 송학동 1C호분	내산리 36호분

7) 거대한 봉토의 축조는 노동력과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한 의도적인 인공구조물로 피장자 또는 집단의 위상을 과시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봉토 축조는 당시 피장자의 계급과 신분을 반영한다.

8) 합천 삼가고분군은 후축 시 봉분을 덧붙여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후축 후 최종 봉분 규모를 기준으로 하였다. 반면 고성 송학동 1호분의 경우 1A호분, 1B호분, 1C호분은 독립된 봉토분 3기가 연접한 것으로 각각의 봉분 규모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개별 고분의 봉분 규모는 보고서 기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각 유형을 축조시기와 소지역별로 제시한 것이 <표 1>인데 본고에서 제시하는 축조시기는 기존 토기편년안과 삼가고분군 국도 33호선 건설구간 내 봉토분 축조시기 검토안을 기준으로 하였다.⁹⁾

Ⅲ. 축조공정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

1. 묘역 선정

고분 축조의 가장 첫 번째 공정은 묘역을 선정하는 단계로 고분을 조성할 자리를 지정하고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선사시대부터 무덤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일정한 무덤군이 조성되는데 가족, 친족, 더 나아가 집단의 공동 묘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무덤군에서의 위치는 피장자의 지위, 피장자와 다른 고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봉토분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피장자의 지위를 나타내는데 입지에 따라 고분을 바라보는 위압감이 달라진다. 또한 주변 고분과 어떻게 배치되는 가도 중요한데 대상 고분보다 더 큰 고분이 있는지, 작은 고분이 주위를 둘러싸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시각적 효과가 달라진다.

⁹⁾ 소가야권 고분 편년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토기 편년안					삼가고분군
연대	김규운 (2009)	박승규 (2010)	하승철 (2011)	여창현 (2013)	김지연 (2013)	이춘선 (2014)
5C 3/4	월산M1A 중촌3 동석곽 우수16	연당14 현동54 예둔1 고이리 나3	현동 64 삼가 3·6·10석곽 중촌3동석곽	현동8 남평10 우수18 도향19	무촌2구10 우수16 중촌3동석곽	Ⅱ-M1
5C 4/4	가좌1 연당14 무촌3구82	우수14 예둔27 가좌 1	우수14 중촌21동석곽 내산3곽 송학동1A-1 거세장목고분	남평1 우수16 연당14 내산3	남평1 오곡 119	Ⅱ-M2-1 Ⅱ-M3-3 Ⅱ-M4-1·2·3 Ⅱ-M8-1·2
6C 1/4	연당23 울대2 가좌2 내산34주	가좌 2 연당 23 내산 8	삼가Ⅱ-M6-1 연당23 송학동1B-1 사천선진리고분	송학1A-11 연당23·18 우복4	무촌3구37 천곡32 가좌1	I-M1-5·6 I-M3-1 I-M7-1·2·4 I-M10-1·2
6C 2/4	천곡3 명동 174	가좌4 수정분2 옥봉7 연당18 내산34	가좌4 연당18 내산34·8·6곽 송학동1C호분 송학동1A-10	가좌1Ⅱ4 내산64·21-1 내산8-3	우복4 가좌2 내산21-1 1 21- 15 1 34주 천곡2	I-M3-4·5 I-M7-6·7 I-M10-7 Ⅱ-M6-4·5 삼가호

삼가고분군을 제외하면 모두 토기 분류를 통해 편년하였다.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통해 소가야권 토기는 삼각투창고배, 일단세장방형투창고배, 수평구연호, 수평구연발형기대 등을 표지로 하며 동시기의 대가야권, 아라가야권 토기와 차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가야고분의 경우 고분군 내 (초)대형분은 주로 능선 상에, 중소형분은 경사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초)대형분은 묘역을 넓게 확보하면서 입지하거나 주변에 후축된 매장 봉토분이 1기 또는 2기 이상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I 유형의 송학동 1A·1B호분은 연접분으로 낮은 구릉의 정상부 중앙에 자리하며 이 곳에서 2~3갈래로 뻗은 능선 상에 8기의 중소형 봉토분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촬영한 사진을 볼 때 현재 고성평야에도 일정 간격을 두고 열상으로 배치되는 중소형 봉토분이 보이고 있어 더 많은 고분이 능선을 따라 열상으로 분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1호분 북쪽에 위치한



사진 1. 송학동고분군 고분 분포 현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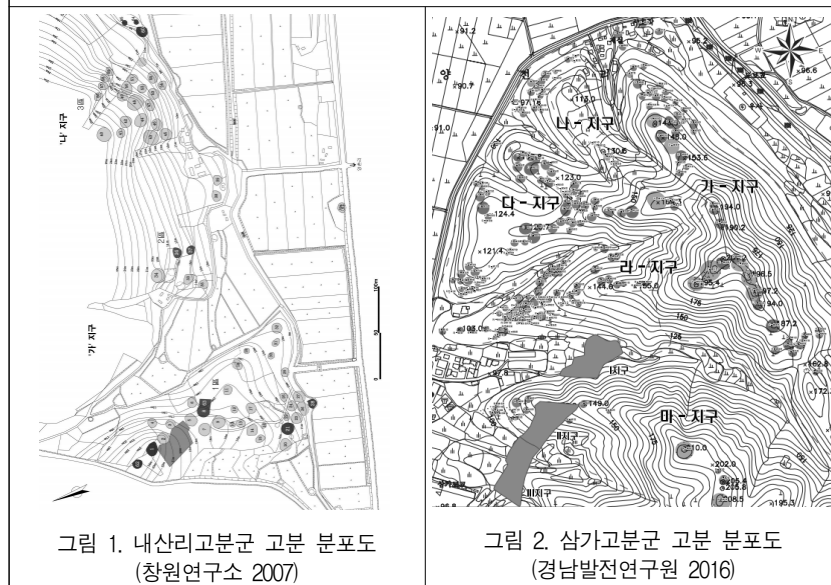


그림 1. 내산리고분군 고분 분포도 (창원연구소 2007)

그림 2. 삼가고분군 고분 분포도 (경남발전연구원 2016)

‘기월리고분군’과 동쪽에 위치한 ‘송학동 제2고분군’은 1호분이 있는 능선의 가지 능선에 입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호분에서 남서쪽으로 700m 이상 떨어진 각각의 구릉 상에 기월리 1호분과 2호분이 위치하며 특히 2호분은 잔존 직경 40m에 이르는 대형분이다. 주변 고분은 현존하지 않지만 송학동고분군 내 기월리 2호분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군집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해발 30m 이하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내산리고분군은 수양산에서 바다쪽으로 뺀어내린 3개의 능선에 해발 25m 이내에 직경 20m 이하의 중소형봉토분 6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남평리고분군은 평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가 비슷한 분구묘 2기가 나란하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호분과 함께 5호 목관묘를 중심으로 한 분구묘 1기의 가능성이 있다.

중촌리고분군은 250여 기 이상의 봉토분이 존재하며 20m 이상 대형분은 10여 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소형분이다. 동서로 뺀은 주 능선에 여러 가지 능선상에 분포한다.

삼가고분군은 2018년 정밀지표조사¹⁰⁾를 통해 288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으며, 기존 발굴조사 된 봉토분 40기를 포함하면 328기에 이른다. 소가야권에서는 최대 규모로 고분군이다. 직경 30m 내외의 대형분도 7기가 확인되었다. 두 개의 능선 정상부에서 각각 (북)서쪽으로 뺀은 여러 가지능선에 다수의 고분이 분포하며 대형분은 능선 상에 중소형분은 경사면에 위치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소가야권 봉토분(분구묘)도 다른 가야권과 마찬가지로 능선 정상부와 말단부에 대형분이 경사면에는 중소형분이 위치하고 열상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고성 송학동·내산리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은 해안가에 위치하며 해발 30m 이내의 낮은 구릉에 열상 또는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2. 묘역 정지

묘역 선정 후 고분이 축조될 구역을 묘역이라 한다. 묘역 조성은 고분의 분형을 결정하고, 묘역 정지작업을 통해 고분 축조의 기초를 마련한다. 매장주체부 위치, 규모, 구조, 봉토 또는 분구의 규모 등 주요 속성은 이 단계에서 계획된다.

소가야권 고분의 묘역 정지방법은 크게 3개의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1형은 구릉 정상부를 삭평하거나 경사면일 경우 ‘L’자상으로 굴착하는 등 평탄면을 만

¹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합천 삼가고분군 정밀지표조사 학술연구용역』, 2018.

든 후, 삭토 시 발생한 암반편 또는 주변의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묘역을 고르게 정지하는 형태이다. 2형은 1형으로 평탄면을 조성한 후, 암(혹)갈색점질토 10~30cm 가량 묘역 전반에 걸쳐 간 양상이다. 3형은 별도의 정지작업 없이 원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구지표만 걷어 내는 등 간단한 정지작업을 하는 형태이다. 또 선축되어 있는 봉분에 별도의 정지작업없이 연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1형과 3형은 중촌리고분군, 삼가고분군, 연당리고분군에서 주로 확인된다. 2형은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율대리고분군 등 고성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군에서는 경사가 낮은 곳에 흑갈색점질토를 깔고 묘광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기월리 1호분, 송학동 1A호분은 묘역 정지 시 각각 청동기시대 석관묘와 이전 세대의 목곽묘(1E호분)를 파괴하지 않고 점토를 깔아 정지하였는데, 무덤을 인정한 상태에서 파괴하지 않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점은 송학동고분군 축조집단의 매장관념으로 볼 수 있다.



사진 2. 기월리 1호분 묘역정지층(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사진 3. 기월리 1호분 기저부 청동기시대 석곽묘 개석 노출 모습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사진 4. 송학동 1E호분 노출 모습 (동아대박물관 2007)

3. 묘광 굴착

봉토분과 분구묘의 차이는 묘광 굴착 시점과 공정에서부터 나타난다. 봉토분은 매장주체부를 축조하면서 봉토를 함께 쌓는데 반해, 분구묘는 분구를 먼저 만든 후 묘광을 굴착하고 매장주체부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매장주체부의 묘광

굴착면이 묘역 정지면일 경우 봉토분으로, 분구 상면일 경우 분구묘로 구분할 수 있다. 소가야권에서 봉토분이 조성되는 고분군은 삼가고분군, 중촌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이고, 분구묘가 조성되는 고분군은 송학동고분군, 울대리 2호분, 내산리고분군, 남평리 10호분이다. 내산리고분군은 봉토분과 분구묘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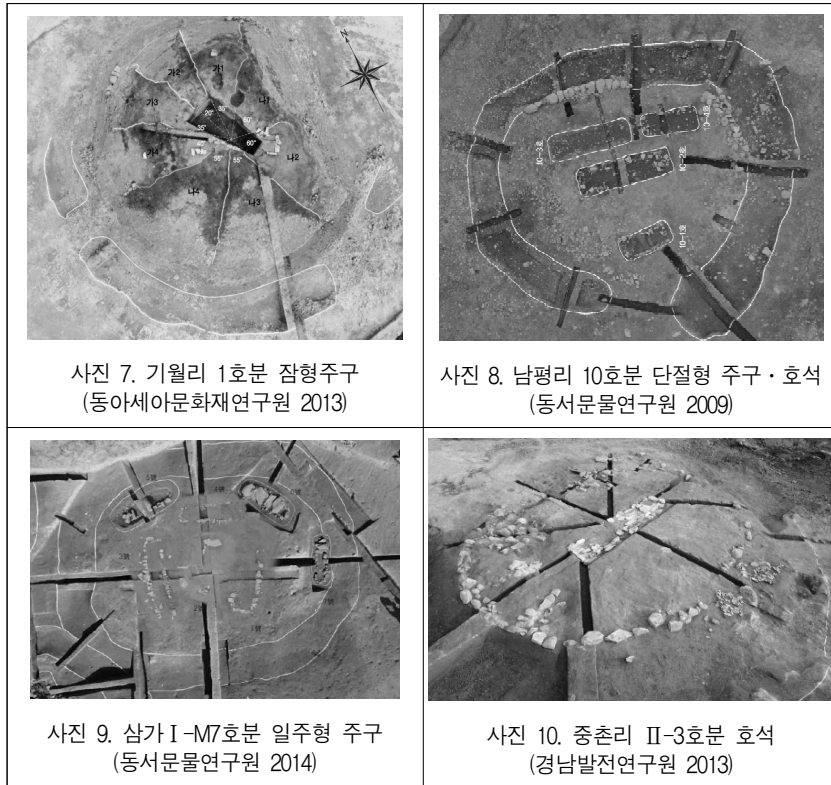


또 묘광과 매장주체부의 수직적 위치를 보면 삼가고분군, 송학동고분군은 지하식 및 반지하식이 많은 반면, 중촌리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은 매장주체부의 3/4 이상이 지상에 있는 준지상식이 많아 차이가 있다. 송학동 1호분은 묘광의 단면 구조가 플라스크형으로 상단은 비스듬히 굴착하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띤다.

4. 주구·호석 설치

주구와 호석은 묘역의 범위를 표시하고 고분 조성 시 또는 조성 이후에, 배수 역할 또는 봉분 유실을 막는 시설로 볼 수 있다. 주구 내에는 대호 등 대형 토기류가 다수 매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고분을 조성하고 난 뒤에 매장의례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소가야권은 호석보다 주구를 많이 조성한다. 삼가고분군, 중촌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의 주구는 경사면 위로만 둘러지는 눈썹형이 많은데, 삼가 I-M7호분과 I-M10호분은 고분 전체를 일주하는 주구를 설치하였다. 남평리 10호분과 울대리 2호분은 한쪽을 튼 단절형 주구를,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은 3군데 이상 단절된 부분을 가지는 잠형주구를 가진다. 송학동 1호분, 기월리 1호분, 내산리 1호분에서 확인되었다. 잠형주구는 해남 용두리고분, 해남 장고봉고분, 함평 신덕고분, 함평 중량고분, 나주 신촌리 9호분, 영암 자라봉고분 등에서는 영산



강유역에서 다수 확인된다. 주변 가야권에서 봉토분에 주구가 확인된 곳은 창녕, 함안이 있으며 모두 눈썹형 주구를 가진다.

한편 호석은 중촌리고분군, 남평리 10호분에서 확인된다. 남평리 10호분은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불분명하나, 주구 내측에 접하여 석렬이 조성되고 있어 호석일 가능성이 있다. 이 고분은 창녕계토기와 철정 부장 등 소가야권 고분과는 차이가 많아 주목된다.¹¹⁾ 중촌리고분군은 호석과 함께 봉토에 다량의 석재가 사용되고 있다. 호석의 폭도 3m 가량 넓게 조성되어 있다.

5. 매장주체부 축조기법과 묘제(매장의례)

매장주체부는 고분의 가장 중요한 시설로 규모, 구조, 시신 및 부장품 매장 방법 등은 피장자의 지위를 반영하며, 고분 축조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가야권의 봉토분과 분구묘는 목곽부터 수혈식석곽, 횡혈식석실이 매장주체로

11) 허승철,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186쪽.

채용되었다.

매장주체부 축조기법의 주요 속성으로는 매장주체부 규모, 장폭비, 평·단면 형태, 벽석 축조기법, 바닥시설 형태와 부장공간 구성 등이 있다.

소가야권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봉토분 1개의 매장주체부 1개가 있는 단독곽식으로 부곽이 없다. 중촌리 M1호분의 경우 부곽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석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가야권역에서 단독곽식은 아라가야권의 함안 말이산고분군, 비화가야권의 창녕 영산고분군, 대가야권의 합천 반계제고분군, 합천 저포리고분군,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남원 월산리고분군 등이 있다. 반면 주부곽식은 창녕 계성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등 비화가야권, 고령 지산동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등 대가야권, 다라국권인 합천 옥전고분군 등이 있다.

1) 단면·평면형태

묘제와 성토방식과 관련된 중요 속성이다. 3개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1형은 네 벽면이 수직으로 쌓여져 매장주체부의 단면이 장방형을 이루는 형태로 가장 많이 확인된다. 2형은 네 벽면이 수직으로 쌓이다 점점 내경하는 형태로 단면 제형을 이룬다. 3형은 상단부가 곡선을 띠며 내경하는 공룡형을 이룬다. 매장주체부(현실)의 단면형태는 수직형(1형)→내경형(2·3형)으로 변화하며, 2형은 송학동 1B호분과 수정봉 2호분, 3형은 연당리 8호분 주곽, 내산리 34호분 주곽, 송학동 1C호분, 중촌리 3호 석실분(신라대) 등 횡혈식석실분이 해당된다.

횡혈식석실분 중 연도는 대부분 중앙에 위치하는데, 중촌리 3호 석실분은 좌편재이다. 묘도의 평면형태는 송학동 1B호분과 수정봉 2호분은 제형, 송학동 1C호분은 나팔형, 연당리 8호분 주곽, 내산리 34호분 주곽은 원형이다.

2) 벽면 축조기법

벽면 축조는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소가야권 봉토분(분구묘)은 모두 단곽식으로 부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목곽을 사용한 경우는 남평리 10호분이 유일하다. 석곽 또는 석실을 사용한 경우 점판암을 이용하여 횡평적, 종평적을 혼용하는 경우는 송학동고분군, 점판암에 종평적을 주로 한 경우는 내산리고분군에서 주로 확인되며, 중촌리고분군, 삼가고분군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사례가 많은데 벽면은 평적, 수적, 외수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 내산리 34호분에서는 입수적, 외수적 등이 확인된다.

중앙 연도를 가진 횡혈식석실인 송학동 1B-1호분에는 벽면에 회백색 점토

를 발라 미장하고 천정과 함께 주철하였다. 또 남쪽 장벽 위에 일정간격으로 철못이 배치되고, 목제선반이 동쪽 단벽 중간에 설치되었고, 현실 입구는 문주석, 문비석, 문지방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삼가 24-1호 석곽은 벽석 최상단석 상면과 주변으로 적갈색 점토를 바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 양 단벽 최상단석 중앙에 홈이 있어 개석 지지를 위한 각재가 결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1. 삼가 24-1호 상단 점토(좌) 및 단벽 상단 결구 홈(우) (경남연구원 2019)

3) 부장 공간 구성

부장 공간 구성은 피장자의 위계를 나타내 주는 속성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소가야권 고분은 심한 도굴로 인해 부장 당시 원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매장주체부의 규모, 남아있는 유물의 양상 등을 볼 때 송학동 1A-1호 석곽이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 구성을 보인다. 양단벽쪽으로 마구류, 갑주류 등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주피장자 공간에는 주피장자와 발치에 토기 공간 등 총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주피장자 공간에는 목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치쪽 단벽의 토기부장공간과 철기공간 사이 공지는 다른 가야고분 사례에서 볼 때 순장자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굴이 심해 명확하지 않다. 이외에 대부분은 3단 공간 구성으로 주피장자 공간 가장 위계가 낮은 3형은 한쪽 단벽에 부장공간을 둔 형태이다. 이 경우도 목관 또는 목곽을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시상석 배치를 볼 때 통나무형 목관을 사용한 경우도 확인된다. 송학동 I B-1호분은 묘도 주변에 토기가 매납되어 있어 시신 안치 후 묘도에서 행해진 의례의 흔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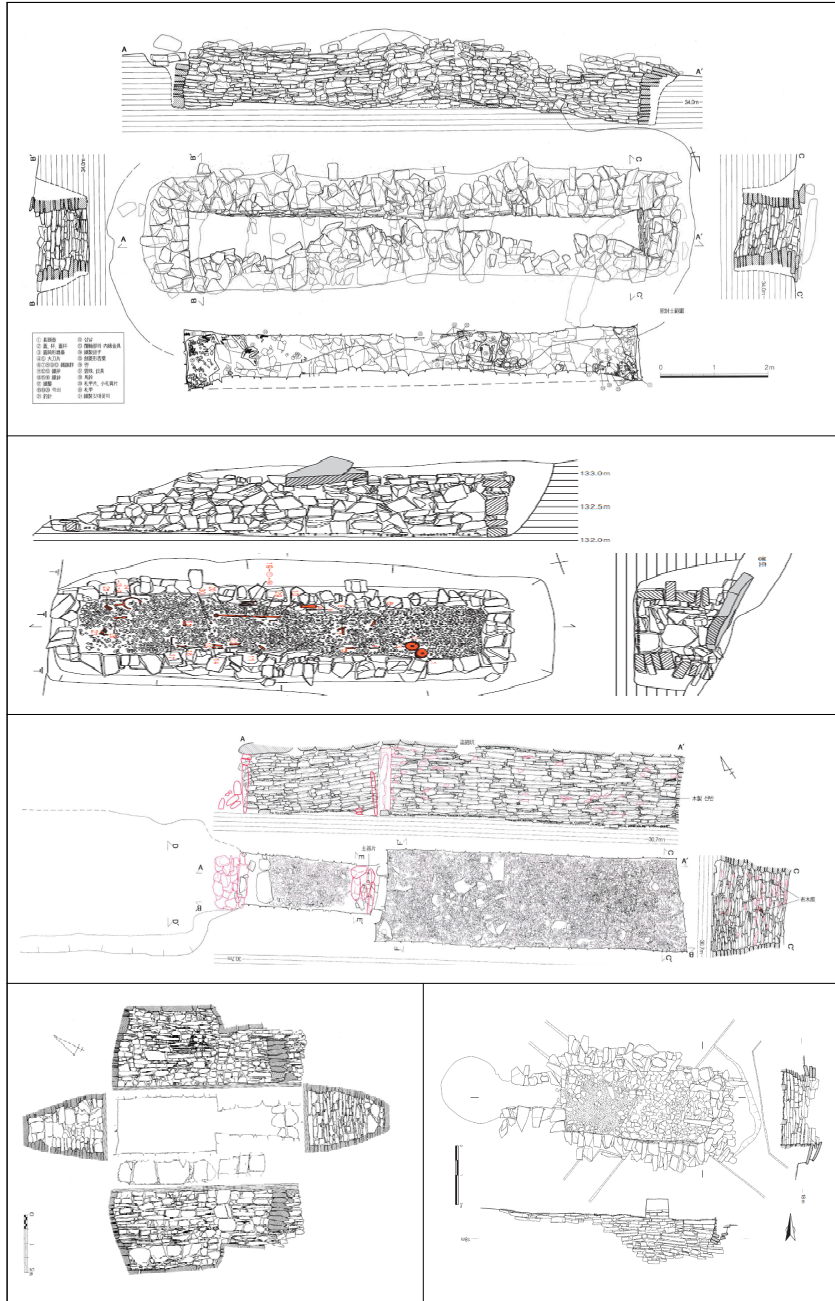


그림 3. 소가야권 고분 매장주체부 축조기법
 (위에서부터: 송학동 1A-1호, 삼가M3-1호, 송학동 1B-1호, 중촌리 3호 석실분, 내산리 34호분 주곽, 각 보고서 전제)

4) 바닥시설

2유형 이상의 고분 바닥에는 석재를 깔아 시설하고 3유형 중심으로 점토를 바닥에 깔거나 묘광 바닥면을 그대로 사용한다. 석재는 판석, 천석, 할석 등 다양하게 이용된다. 횡혈식석실 중에 송학동 1B-1호분, 1C-1호분은 연도부에도 돌을 깔았다. 삼가고분군에는 목관을 고정하고, 부장공간과 피장자 안치공간을 구분하는 관보강석이 일부 확인된다.

5) 매장주체부 복개·밀봉

매장주체부 복개 및 밀봉은 매장주체부 축조공정을 완료하는 단계이며, 이후 본격적인 봉분 축조가 진행된다. 남평리 10호분은 목곽으로 목개의 가능성도 있지만 상단부가 유실되어 알 수 없다. 나머지 고분은 모두 석개로 덮고 상부는 점토로 덮어 밀봉하였다. 밀봉토는 유실된 경우가 많으며 확인되는 고분은 송학동고분군에서 확인된다. 삼가 I 지구 M2-1호분 밀봉부 주변으로 시상석으로 사용했던 자갈무더기와 할석이 위치하는데 복개 후 밀봉단계에 의례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진 12. 삼가 I 지구 M2-11호 관보강석
(동서문화연구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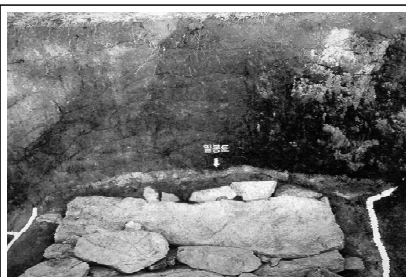


사진 13. 송학동 1B-1호 밀봉토
(동아대박물관 2007b)

6. 봉토(분구) 성토

1) 하부봉토와 상부봉토

현재까지 소가야권의 봉토분 및 분구묘는 작게는 10m 내외, 크게는 30m에 달하는 봉분(분구)을 조성하고 있다. 쌓는 재료 획득에서부터 운반, 성토작업의 모든 과정을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하는 대형 고분의 축조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 비용¹²⁾

¹²⁾ 함안 도항리 6호분을 대상으로하여 고분 축조의 작업인력을 산출한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이 발생하고, 고분 축조 후에도 오랜 기간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봉분이 유실 되지 않게 기획하여 축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성토 과정은 고도의 토목기술이 필요하며,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봉토분은 매장주체부 복개 상면을 기준으로 하부 봉토와 상부 봉토로 구분되며, 분구묘는 묘광 굴착 이전 축조된 부분을 '분구'로 볼 수 있고, 매장주체부 축조 이후 밀봉과 성토, 피복을 통해 고분을 완성한다. 봉토분의 경우 대체로 상부봉토에서 구획에 의한 본격적인 성토가 이루어지며, 소가야권 분구묘에서는 분구 조성 시 구획에 의한 성토가 확인되고 있다.

봉토분에서 하부봉토 축조는 매장주체부 일부가 묘광 상면 위로 축조되는 경우로 소가야권 봉토분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대체로 평탄화된 정지면 위를 매장주체부 벽석과 함께 수평성토하였다. 이 단계에서 호석과 주구의 설치가 진행되기도 한다.

2) 성토기법

소가야권 봉토분과 분구묘의 경우 구획으로 나누어진 공간의 성토기법으로는 수평성토, 봉분 중심에서 외연으로 경사지게 성토하는 외사향성토, 반대로 봉분 외연에서 중심으로 경사지게 성토하는 내사향성토, 외연을 둑처럼 만들고 내부를 성토하는 제방상성토가 있다.

대부분 수평성토와 외사향성토가 확인되며 삼가 24호분과 중촌리 M1호분, 내산리 36호분, 송학동 1B호분의 외연에 제방상성토와 내부에는 내사향성토도 확인된다. 봉토의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체의 평면 형태와 조성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따르면 직경 12m, 높이 2.1m의 원형 봉토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작업인력은 391명이 소요된다. 하루에 20명이 작업한다고 가정하면 약 20일 동안 작업해야 한다.
류춘길, 『함안 도항리 6호분 축조기술에 대한 지질공학적 연구』, 『咸安 道項里 六號墳』,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2008.

3) 성토제와 구획제

성토의 재료로는 토재, 점토블럭¹³⁾, 토재+석재, 석재로 분류한다. 고성 해안 지역은 점토블럭이 많이 사용되고, 중촌리고분군에는 석재가 다량 이용되었다.



13) 점토를 뭉쳐서 만든 덩어리를 크게 3종류로 구분하고 점토블럭을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혼입된 점토 덩어리(塊)로, 육면체 등 일정한 형태를 띤 것은 점토 블럭(block)으로, 부정형인 것을 점토 블록(block)으로 정의하였다.

권오영, 『고대 성토구조물의 성토방식과 재료에 대한 시론』, 『한강고고』 제5호, 2011, 88쪽.
본고에서는 구획제, 성토제, 또는 그 외에 용도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점토덩어리를 점토블록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고분 축조 당시 구지표에 있던 흙을 떼서 그대로 이용하거나 열을 가해 단단하게 한 뒤 사용하는 '표토블록'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성토제로 사용한 양상이 있다.

구획을 하는 방법으로는 구획기법에 의한 경우와 구획재료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구획기법에 의한 분류로는 구획의 경계에 서로 다른 재료를 교차 되게 쌓아 올린 교차성토와 구획의 경계에 서로 다른 재료를 맞닿아 쌓아 올린 연접성토가 있으며, 구획의 경계에 놓는 구획재료에 의한 구분으로는 석(축)렬, 표지석, 점토블럭 등이 있다.

가야고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획석(축)렬 또는 표지석은 삼가 가-24호 분, 삼가 1호분, 중촌리 II-3호분에서 확인된다. 삼가고분군에서는 중심부에 대 구획선으로 축대처럼 석축을 쌓아 성토하고 있다.

송학동 1호분, 기월리 1호분에서는 일반 성토재와 확연히 구분되는 흑갈색의 점토블럭이 사용된다. 점토블럭을 구획에 경계에 놓고 단면 거의 수직선이 확인될 정도로 맞닿아 쌓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소가야권의 점토블럭은 다른 가야고분이 타원형을 띠는 것과 차이가 있다. 대체로 각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점성이 높거나 성토재로 이용된 흙과 성분 차이가 확연하여 축조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성토방식, 성토재 및 구획재는 지형과 고분 규모, 축조 재료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송학동 1-B호분은 봉토 상부에, 중촌리 M1호분도 봉토 주변으로 토기가 매납되어 있어 봉토 성토 과정에서의 매장의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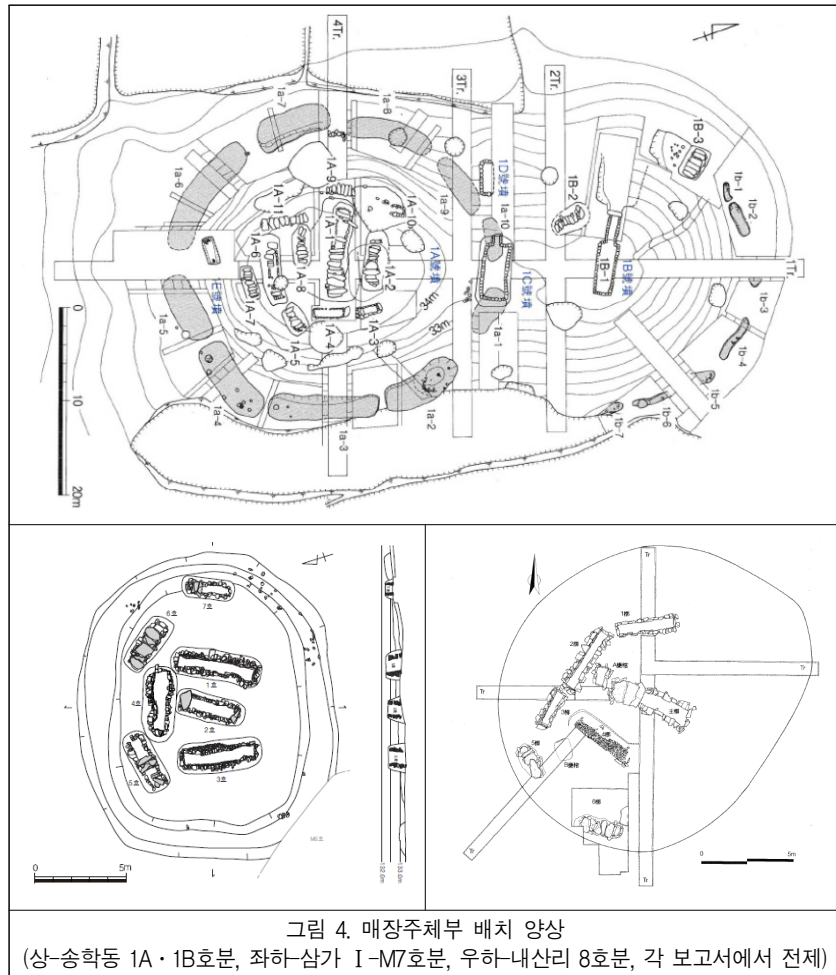
7. 피복 및 완성

상부 봉토 성토가 끝나면 봉분 외형에 점토 등을 이용해서 피복하는데, 대형 구조물의 마감이자 봉토 유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경우 피복 토가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는데, 송학동 1A호분에는 봉분 조성 이후에 되파고 축조된 배장곽과 1B호분과의 연접부 주변으로 회갈색 점질토로 피복한 양상이 확인된다. 봉분 연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삼가고분군에서는 봉토 피복을 주구 굴착을 통해 얻어진 흙을 이용하는데, 성토재와 성분이 거의 비슷해 송학동고분군처럼 토층이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는다.

고분 축조 완료 후 매장의례의 흔적이 주구 내부에서 많이 확인된다. 남평리 10호분, 삼가고분군,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에서는 주구 내부에 대호 등 토기편이 다수 확인된다. 또 송학동 1B호분에서는 잠형 주구 내 원통형토기가 매납되었다. 한편 삼가고분군 I 지구 M8호분 주구 내에는 불을 태운 흔적도 남아 있다.

8. 매장묘(분)와 연접분

소가야권 봉토분과 분구묘의 가장 큰 특징은 선축된 고분의 봉토를 되파고 매장묘가 만들어지거나, 선축된 고분에 연접하여 봉토분 또는 분구묘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분구묘인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삼가고분군에서는 하나의 봉분 안에 되파고 축조된 매장묘가 많게는 10기까지 확인된다. 추가로 조성된 매장묘는 대부분이 먼저 조성된 석곽과 중복없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볼 때 선축한 무덤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점을 볼 때 추가로 조성되는 무덤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축조집단 내 매장규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소가야권 연접분의 축조기법은 삼가고분군과 송학동고분군으로 크게 구분된다. 삼가고분군은 선축된 봉토에 많게는 4번에 걸쳐 봉토가 덧붙여지는 독특한 축조양상을 보여 준다. 삼가고분군의 경우 후축하는 봉토를 미리 의식해서 묘역을 확보하거나 봉분 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석곽을 배치하는 점도 후축 고분을 생각한 축조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분구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송학동 1호분의 경우, 1A호분을 선축했을 때는 연접 고분(1B호분)에 대한 계획 없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B호분도 후축한 1C호분에 대한 축조 계획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삼가고분군과는 다르다.

배장분(묘)와 연접분의 선축 고분과 후축 고분의 평면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축 고분과 직렬(평면 'T'형)과 좌우로 나란히 배치된 병렬의 형태, 즉 선축 고분을 감싸는 'ㄷ'형 구조를 A형으로 설정한다.

B형은 A형 배치 중 직렬의 고분 위아래로 나란히 직렬로 배치되는 형태이다. C형은 등고선과 나란히 봉분 외연을 일주하면서 배치되는 형태이다. 마지막 D형은 부정형으로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봉토분으로 배장묘가 기존 봉토를 굴착해서 후축된 삼가 I-M7호분은 2호를 기준으로 1·3·4호를 직렬+병렬 배치(A형)하고, 4호 양 단벽으로 5·6호를(B형) 배치한 후 마지막에 7호를 가장자리에 배치(C형)하였다. 즉 A형→B형→C형의 순서로 조성되었다.

분구묘인 송학동 1A호분의 배장묘 축조는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1호→2·4·6호→3·5·7호→8·9호→11·10호 순서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먼저 주곽인 1호의 동단벽 주변을 2·4·6호가 직교+병렬되게 'ㄷ'자로 배치(A형)된 후, 4호 석곽과 나란히 하여 3·5·7호가 축조(B형)되었다. 이후 다시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여 주곽의 서단벽 주변으로 조성하는데, 8·9호를 1호 주변에 'ㄷ'자로 배치(A형)하고, 9호와 나란히 11·10호를 축조(B형)하였다. 이러한 배치(A형→B형→A형→B형)는 좁은 공간임에도 중복되거나 선축한 석곽을 파괴하지 않아, 고분의 위치를 인지하고 후축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내산리 1호분은 주곽에 'ㄷ'자로 1-1·1-2·1-3곽을 배치(A형)하고, 그 후에 병렬 배치된 1-3호의 남단벽 쪽으로 1-4·1-5곽을 나란하게 조성(B형)하였다. 내산리 8호분과 36호분은 각각 '주곽 → 2·4곽·A옹관 → 1·3곽'과 '주곽 → 1·2호 석곽 → 3호 석곽'을 기본 배치(A형→B형) 후 봉토 가장자리에 등고선과 나란하게 하여 8호분은 5·6호 석곽·B옹관을, 36호분은 4호 석곽을 각각 배치하였다.⁴⁴⁾ 따라서 8호분과 36호분은 A형→B형→C형이다. 34호분은 중심에

선축 고분과 외연에 석곽을 일주하여 배치한 C형만 확인된다. 송학동 1B호분의 경우 부정형인 D형을 띤다. 송학동 1호분은 선축된 것이 후축된 것보다 매장주체부 규모가 현저히 높고, 내산리고분군의 경우도 비슷한 규모의 매장주체부가 후축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선축된 것이 큰 경향을 보인다.

IV. 소가야권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이상 소가야권 주요 고분의 축조공정별 속성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소가야권을 4개의 소지역권인 산청(중촌), 합천(삼가), 고성(내륙)·진주, 고성(해안)·통영으로 나누어 위계 유형별(표 1) 고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산청 중촌리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특징과 축조집단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1. 지역별 고분 축조의 전개양상

1) 산청(중촌)

산청 중촌리고분군은 중촌리고분군은 해발 286m 백마산에서 뺀 여러 능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고분군 북쪽에는 백마산성이 위치한다. 현황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약 250여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산청에는 봉토분이 조성된 고분군으로 중촌리고분군과 생초고분군이 대표적인데 지리적 위치를 보면 중촌리고분군은 산청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합천과의 령, 진주와 인접한다. 특히 삼가고분군과 중촌리고분군은 양천강 유역 상하류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기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진다. 반면 생초고분군은 산청의 북쪽에 위치하며 함양, 거창 등 지리산 주변의 경남 서부 내륙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위치적 차이는 고분에서도 확인되는데 생초고분

14) 한 봉분에 15기의 석곽이 배치되는 내산리 21호분은 봉토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고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본 발표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지만, 기 보고된 것처럼 15기가 모두 한 봉분에 있다고 가정할 때, 8곽을 기준으로 1·6·11곽의 직렬+병렬 배치(A형) → 6곽 주변에 9·(3)곽 배치(B형) → 8곽 동벽에 2곽 병렬 배치(A변형) → 3~5·7·10~15곽의 고분 가장자리 배치(C형)로 볼 수 있어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의 배치패턴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5) 하승철, 앞의 논문, 2015, 128쪽.

군은 주곽과 부곽이 '11'자형으로 전형적인 대가야권 묘제로 볼 수 있다. 내부 부장유물에서도 대가야양식이 주를 이룬다.

중촌리고분군은 봉토분 축조 이전에 목곽묘 단계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3호분 북토광에서는 단봉문환두대도를 비롯, 철모, 철부, 안고, 재갈 등 소가야권에서는 드물게 다량의 금속유물이 출토되었다.

5세기 중엽~후엽의 축조 I 기에는 소가야권 위계Ⅱ유형인 중촌리 M1호분이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가야권에서 드문 호석이 조성되었고 다량의 성토재가 사용되었다. 점토블럭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제방상성토가 일부 확인된다. 위계Ⅲ유형인 Ⅱ지구 3호분에서도 호석과 함께 구획의 경계에 놓인 석렬 또는 표지석이 확인된다.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의 축조 Ⅱ기에는 위계Ⅲ유형의 5호분이 조사되었다. M1호분과 같이 다량의 석재가 성토재로 이용되고 있다. 중촌리 M1호분과 5호분에 석재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층식시설로 보기도 하는데, 봉토 전면에 있지 않고 고분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에만 확인되고 있어 일정구간 사용된 성토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매장주체부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상부봉토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잔존하는 면이 봉토의 표면으로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층식이 아닌 성토재로 다량의 석재가 쓰인 예는 고령 분관동고분군과 창녕 영산 1호분이 있다. 한편 21호 석곽묘 모서리부분에 부곽으로 보고된 석곽 1기, 중촌리 M1호분에 중심의 매장주체부와 별도로 조성되었다고 보고된 추정 석곽 1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 5호분에는 삼가고분군에서 주로 보이는 관보강석이 확인되었다.

한편 중촌리 3호 석실분(신라대학교 조사)은 선축된 수혈식석곽분에 연결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석실분은 1호 석실분과 함께 6세기 전엽~중엽의 축조Ⅲ기의 위계Ⅱ유형으로 평천장의 현실, 중앙 연도식의 형태를 볼 때 고령 고아동고분과 유사하다.

2) 합천(삼가)

중촌리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목곽묘에서 석곽묘, 횡혈식석실묘 등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묘제가 확인된다.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오랜 기간 조성된 고분군으로 소가야권에서 가장 많은 328기의 봉토분이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고분이 조사된 국도 33호선 건설 구간 내에서 5세기 중엽~후엽에 조성된 가장 이른 봉토분인 Ⅱ지구 M1호분은 후축되는 고분 없이 조성된 단곽식이다. 평면 위치를 보면 경사가 높은 쪽으로 석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한 듯 공간을 비우고 있어, 이후에 축조되는 봉토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이후 조성되는 II지구 M4호분과 축조II기(5세기 후엽~6세기 전엽)의 I 지구 M7호분, M10호분 등은 경사가 높은 쪽으로 배장곽을 평행하게 병렬배치하면서 봉분을 연결하여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배장곽 또는 연결분 축조양상은 초기에는 선축 석곽 주변에 나란하게 하여 봉토를 되파고 조성된다. 석곽의 규모나 바닥·복개면도 거의 동일하게 조성하였다. 선축한 봉토의 범위, 즉 주구 내에 배치된다. 후기로 가면 선축 봉토 상부에 배장곽과 봉토를 덧붙여 연결하는 수직·수평 증축 양상으로 변화한다. 선축된 주구를 매우고 조성되기도 한다. M7호분은 고성 해안지역과 유사한 배장곽 배치(A형-B형-C형)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의 연결분들은 위계III유형의 해당하는 것으로 대체로 비슷한 규모의 석곽이 대등한 관계로 추가되는 반면, 위계II유형에 해당하는 축조II기의 가-24호분은 봉토 중앙에 앞에서 살펴본 위계III유형보다 2배 가량 길이가 긴 8.3m의 석곽을 조성하였다. 또 이 석곽의 1/4 정도 밖에 되지 않는 2m 이하의 소형 석곽을 봉분 외연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C형)하고 있어 위계III유형은 차이를 보인다. 축조기법에서도 제방상성토, 고분 중심에 대구확선 석축렬 등 위계III유형에 보이지 않는 봉토 성토기법도 확인된다. 축조III기(6세기 전엽~중엽)에 해당하는 위계II유형의 삼가 1호분은 앞 시기의 위계III유형과 같이 수평·수직 증축현상이 모두 확인되나, 선축되는 매장주체부 규모가 후축되는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크다는 점과 축대형 구획석축렬도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앞 시기의 가-24호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볼 때 중촌리고분군에서는 위계에 따라 선·후축 고분의 규모 차이와 축조기법을 다르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호분보다 늦은 단계의 삼가 9호분에서는 횡혈식석실과 함께 신라계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삼가고분군 축조집단의 상황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고성(내륙)·진주

연당리고분군은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한 고성 시내 중심지에서 내륙으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고성에서 진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연당리고분군은 5세기 말부터 6세기 전·중반에 걸쳐 조성되었다. 총 4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는데 수혈식, 횡혈식 묘제가 확인되었다. 고성 해안지역과 달리 봉토분 축조기법이 확인되며, 수혈식석곽분의 경우 배장묘가 추가되지 않는 단독곽식 구조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연당리 20호분 횡혈식석실분은 세장한 현실에 중앙 연도식으로 송학동 1B-1호 석실의 유형을 따르고 있어 수혈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봉토 규모는 크지 않으나 연당리 18호분의 경우 토재와 점토블럭, 석재를 이용하여 연결성토하는 등 산청, 함안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성토방식이 확인된다. 호석을

축조하지 않고 경사가 높은 곳에만 부분적으로 주구를 설치하는 방식은 창녕 및 함안지역과 유사하다.

한편 진주는 일제강점기 조사된 수정봉·옥봉고분군 이외에 봉토분 조사자료가 거의 없다.¹⁶⁾ 일제강점기 조사자료를 볼 때 수정봉 2호분, 옥봉 7호분 등은 세장한 현실에 중앙 연도식으로 연당리 20호분, 송학동 1B-1호와 연결되고 있다. 봉토 축조기법을 알 수 있는 조사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4) 고성(해안)·통영

통영 남평리유적은 축조 I 기(5세기 중엽)경에 해안가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분구묘, 목곽묘, 석곽묘 등 10기가 조사되었다. 이중 10호분은 목곽묘 4기로 구성된 분구묘이다. 중앙에 10-2호 목곽묘가 배치되고 양쪽에 10-1호와 10-4호가 배치되는 형태이나 부장유물 간 시기차가 거의 없어 축조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소가야권에서 가장 먼저 조성되는 분구묘로 전후시기의 연결되는 분묘유적이 없어 돌발적인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또 창녕양식 토기와 철정의 부장에서 소가야권 고분과는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남평리 10호분의 분구묘 축조기법과 배장묘 배치 형태는 축조 II 기(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조성되는 송학동 1A호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장곽 배치는 선축 고분에 병렬로 배치되는 것에 더해 직렬(평면 'T'형)로 배치하고, 다시 직렬로 배치된 고분의 위아래로 배장곽을 추가하는 등 남평리 10호분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송학동 1호분, 송학동 1B호분은 소가야권에서 유일한 위계 I 유형으로 봉토와 매장주체부 규모, 부장공간 구성,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여준다. 축조 II 기(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조성된 1A호분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배장묘가 조성된 분구묘이다. 모두 수혈식석곽의 묘제를 가진다. 반면 축조 III 기(6세기 전엽~중엽)에 조성된 1B호분은 횡혈식석실분으로 내부에 문주석, 문지방석, 문비석을 갖추고 있으며 벽면에 목제선반을 시설한 흔적과 함께 벽면은 점토를 바르고 주칠을 하는 등 왜계 석실의 요소가 다수 확인된다.

한편 고성읍에서 마산방향으로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지역의 내산리고분군은 축조 II 기의 6세기 전엽부터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고분 축조기법, 배장곽 배치 유형 등에서 송학동고분군과 유사하다. 34호분은 횡혈식석실분을 주곽으로 하는데 배장곽의 배치가 고분 가장자리에 일주하고 있어 송학

¹⁶⁾ 최근에 가좌동고분군 봉토분 일부가 조사되었다.

동 1A호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배치이다. 봉토와 매장주체부 규모, 부장공간 구성, 봉토 축조기법에서 송학동고분군보다 위계가 낮은 집단의 묘역으로 판단된다. 또 축조Ⅲ기가 되면 대가야와 더불어 특히 신라계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소가야권 고분군의 특징과 축조집단의 성격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소지역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가야권에서 볼 수 없는 다양성을 띤다. 이는 토기문화권에 비해서 동질성이 약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각 고분군에서 만들어진 고분의 축조기법과 매장형태는 서로 간 비슷하면서 차별되는 모습은 소가야라는 정치체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산청 중촌리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등 소가야권 3대 고분군의 축조기법 및 매장형태의 특징과 출토유물 양상 등을 통해 축조집단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소가야의 고분문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1) 중촌리고분군

먼저, 산청(중촌)은 축조기법에서 봉토분, 호석, 다량의 석재 성토재, 제방상성토기법, 구획석렬(표지석) 등의 특징을 보인다. 석실단계가 되면 봉토를 덧붙여 축조하는 연접양상도 추정된다. 매장형태를 보면 묘제의 변화는 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혈식석실묘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매장주체부 장폭비가 5:1 내외(수혈식)에서 2:1 이하(횡혈식)으로 변화한다. 축조기법 상 호석, 제방상성토기법, 구획석렬은 고성(해안)지역의 분구묘와 구분된다. 특히 호석의 설치와 함께 다량의 석재 성토재는 인근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도 보이지 않는 외래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앞 시기에 조성된 3호 북토광묘(목곽묘)에서 출토된 단봉문화환두대는 지산동 73호분과 환두부 형태가 동일하여 주목된다. 이와함께 재갈, 안고, 철모, 철부 등 특히 5세기 중엽 전후의 소가야 고분에서 부장되는 예가 극히 적은 철제품 역시, 같은 시기 대량의 철제품을 부장했던 지산동고분군과 관련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가야권에서 호석은 고령, 창녕, 합천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가야권에서 가장 이른 봉토분인 지산동 73호분, 계성 1~4호분에서 채택되는 요소로 봉토분과 함께 등장하는 외래적인 요소이다. 또한 축조Ⅰ기인 M1호분의 제방상성토기법, 구획석렬 등은 또 석재 성토재 역시 고령 본관동고분군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M1호분과 21호 석곽에서 언급되었던 ‘부곽’의 기능성은 명확한 양상은 알기 어려우나 잔존 봉토양상 등을 볼 때 선축된 매장주체부와 동시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부곽인지 순장곽인지 알 수 없으나 여하튼 동시에 축조된 것이라면 지산동고분군, 반계제고분군, 백천리고분군 등 대가야권 묘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3호 석실이 선축된 수혈식석곽분에 봉분을 연결하거나, 관묘강석이 확인되는 양상 등은 삼가고분군 유형의 봉토 수직 연결 및 소가야권 묘제의 영향을 시사한다. 횡혈식석실인 1호분과 3호분은 다시 고아동고분군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 대가야와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실 단계에는 대가야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다만 중촌리고분군의 현재까지 조사자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봉토분 초기는 대가야, 이후 소가야 고분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 두고자 한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대가야의 영향을 받은 루트는 ‘고령-합천(옥

	
<p>사진 22. 지산동 73호분 토제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p>	<p>사진 24. 단봉문화두대도 (좌-중촌리 3호 북토광묘, 우-지산동73호분, 각 보고서에서 전제)</p>
	
<p>사진 23. 본관동 63호분 석재 성토구간 (계명대박물관 1995)</p>	<p>그림 5. 철모 (상-중촌리 3호 북토광묘, 하-지산동73호분, 각 보고서에서 전제)</p>

전)-합천(삼가)-산청(중촌)’이 아닌 ‘고령-거창(석강?)-함양(백천)-산청(생초)-

산청(중촌)의 루트로 추정된다. 이는 합천 옥전고분군과 삼가고분군 간 5세기대 상호 관련성이 없고, 최근 거창 석강리유적에서 2종의 호석, 2기의 부곽, 봉토 내 순장곽을 갖춘 5세기 후반경의 대가야식 고분이 확인되었다. 백천리고분군의 대가야식 묘제, 생초고분군 역시 대가야 상위급의 묘제와 대형 봉토분, 단봉문환 두대도가 출토되어 유력한 대가야권 관련 집단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촌리고분군은 200년 가량 지속하여 200여 기의 봉토분을 조성하는 것은 집단이 오랫동안 유지해오면서 대가야, 소가야(삼가고분군)과의 영향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받으며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남강 수계에 있어 대가야-소가야의 가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삼가고분군

삼가고분군은 소가야권에서 가장 오래동안, 가장 많은 봉토분이 조성된 고분군이다.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로 묘제가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있으며 특히 배장곽을 기존 봉토에 추가 배치하거나 봉토를 덧붙여 수평·수직으로 증축하는 예는 타 가야권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고유 매장풍습으로 생각된다.

남평리 10호분이 시원이 되는 선축묘와 배장묘의 평면 배치는 삼가 I 지구 M7호분과 더불어 고성 송학동 1A호분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조성된다. 분구묘와 봉토분이라는 구조적 차이는 있지만, 다곽식의 유사한 배치를 보이는 점은 매장규범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삼가고분군은 M7호분 이외에도 I 지구 M8호분, II 지구 M14호분, 2호분(동아대) 등에서 정연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배장묘 배치 패턴이 확인된다. 특히 M7호분의 ‘ㄷ’형(A형)→직렬(B형)→외연 일주(C형) 패턴은 내산리고분군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매장관념 또는 매장규범은 소가야양식 토기문화와 함께 ‘소가야양식 묘제’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현상이다. 한편 6세기 전반 고령 지산동 518호분에서는 순장곽이 축조공정을 달리하며 배치되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최초 봉토 중앙에 주부곽을 조성한 뒤 고분 남쪽으로 3기의 순장곽을 일주시키고, 다음 공정에서는 북쪽에 순장곽 1기를 배치한 뒤, 상부봉토 축조 이전 봉토를 되파고 주부곽과 직교되게 순장곽 1기를 배치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봉토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의 지산동 45호분의 순장곽 배치를 볼 때 유사한 패턴의 순장곽 조성원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가야식 배장곽 배치와 같은 매장규범이 대가야권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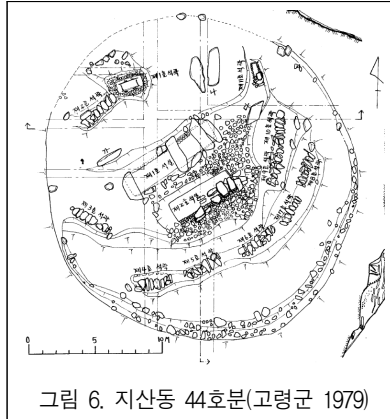


그림 6. 지산동 44호분(고령군 1979)



그림 7. 지산동 518호분(가야연구소 2016)

합천 수물지구에는 대가야식 토기문화와 묘제, 소가야식 토기문화와 묘제가 섞여 있는 지역이다. 반계제고분군과 같이 대가야의 성격이 강한 고분군도 있지만 창리고분군, 저포리고분군 등은 삼가고분군의 다곽식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유물에 있어서는 대가야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창리 A-18호분과 지산동고분군 CCTV 설치 구간 내 B-4·5호분에서는 수직 증축(배장) 사례가 확인되었다. 삼가고분군의 고유 묘제가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단 지산동고분군에서는 봉토가 없는 하위 묘제에 채택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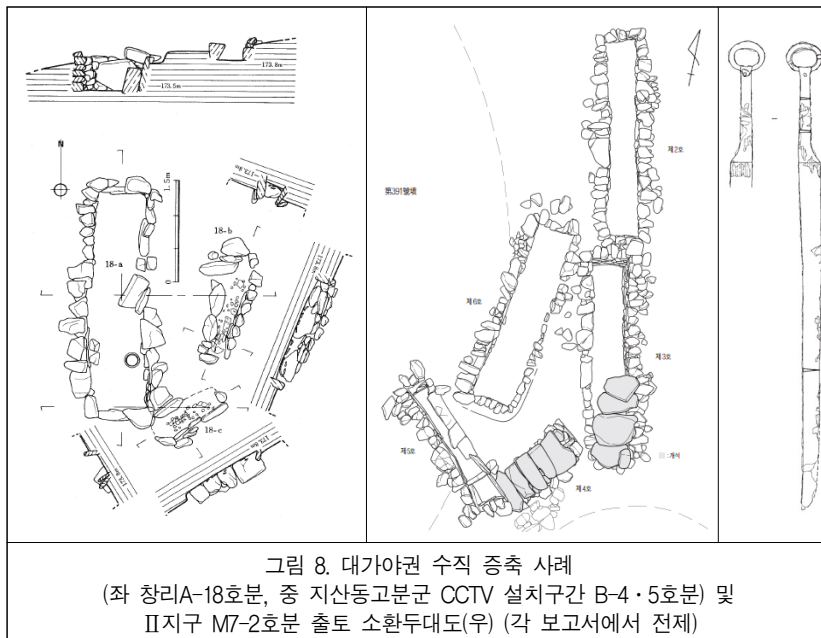


그림 8. 대가야권 수직 증축 사례
(좌 창리A-18호분, 중 지산동고분군 CCTV 설치구간 B-4·5호분) 및
II지구 M7-2호분 출토 소환두대도(우) (각 보고서에서 전제)

제의 집단 간 축조기법 정보 공유는 창녕 영산고분군과 교동·송학동고분군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삼가고분군의 주요 축조기법을 살펴보면 II유형의 봉토분에서 고분 중심을 지나는 축대형태의 구획석축렬이 확인된다. 이와 유사한 형태가 함안 말이산 13호분, 창녕 계성 북5호분, 의성 대리리 2호분 등이 있다. 이중 함께 축조하면서 중앙부에 돌을 채워넣듯이 쌓아 올리는 형태는 가-24호분과 말이산 13호분이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띤다. 눈썹형 주구도 두 고분 모두 확인된다. 또한 단벽에 각목을 결구하기 위한 홈은 말이산고분군의 목조기구시설과 관련있는데 모두 개석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용도로 볼 수 있다. 축조II기에 해당하는 II지구 M4-3호 석곽, II지구 M8-2호 석곽에서 아라가야 유개고배가, II지구 M7-2호분의 소환두대도와 I 지구 M2-1호 석곽, I 지구 M4-1호 석곽에서 출토된 유자이기¹⁷⁾가 아라가야 출토품과 유사한 점을 볼 때, 말이산고분군의 축조기법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축조II기 후반인 6세기 이후가 되면 점차 대가야 양식과 함께 신라양식 토기의 출토가 증가하는데,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3) 송학동고분군

중촌리고분군, 삼가고분군과 같이 점진적인 발전 없이 일시적이고 외래적인 요소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2기에서 3기에 걸쳐 1A호분, 1B호분, 1C호분이 순차적으로 구성되는데 1A호분 배장곽 중에는 1B호분보다 뒤에 축조되는 것이 있을 정도로 1A호분의 축조기간이 길다.

1A호분은 분구묘적 특징을 가진 남평리 10호분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으며, 1A호분의 배장묘 축조 과정은 삼가고분군의 그것과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축조되었음이 상정된다. 1A호분과 1B호분의 잠형주구와 1B호분의 석실 구조, 주구 내 원통형토기 부장 등은 왜계요소로 볼 수 있다. 또 1B호분의 표주박형 연접양상은 신라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출토 마구 및 토기에서는 1A호분은 대가야, 1B호분은 왜, 1C호분은 신라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축조기법에서 경남 내륙지역의 소가야 고분과 달리

¹⁷⁾ 여창현은 이들 유자이기(조형장철판의기)가 아라가야 최고집단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친연성의 상징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창현, 『부장유물로 본 4~6세기 합천 삼가고분군 축조집단의 특징과 변천』, 『嶺南考古學』87號, 嶺南考古學會, 2020, 140쪽.

점토블럭을 이용한 봉토 성토를 보여준다. 구획제 및 성토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특히 송학동고분군에서는 각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성토제와 뚜렷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또 묘역 정지시에도 점토를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1B호분의 왜계 석실 요소는 주변의 왜계고분인 거제 장목고분, 의령 경산리고분군, 마산 대평리 M1호분, 사천 향촌동 II-1호분과는 차이가 있다. 석실의 형태도 재지적인 세장한 석곽에 왜계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앞의 고분들이 재지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또 앞의 왜계고분은 독립적으로 축조되는데 비해 1B호분은 1A호분에 연접하여 축조되고 있어 피장자의 성격이 매우 복잡함을 알 수 있다. 거제 장목고분, 의령 경산리고분, 마산 대평리 M1호분, 사천 향촌동 II-1호분의 경우 피장자가 왜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1B호분은 소가야, 신라, 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까지 소가야권에서 가장 높은 위계의 고분이라는 점은 6세기를 전후하여 돌발적으로 등장한 송학동고분군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송학동고분군의 복잡한 외래요소는 6세기 전후로 가야와 왜, 신라의 복잡해진 정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장식마구를 비롯한 신라계 유물이 왜로 건너가고 왜의 위세품인 이모가이제 운주(고성, 창녕, 신라), 야광재패국자(고령), 대금계갑주(창녕, 영산강유역), 충각부주(고령, 합천)와 적극적인 교류의 증거인 왜에서 만든 녹나무제 배(창녕) 등은 모두 6세기를 전후한 교류·교섭의 산물이다. 어떤 경로를 거쳐 왜의 문물이 비화가야, 대가야, 신라에 가는 지, 왜는 어디에서 가야와 신라의 문물을 입수하는지 등 당시 상황을 풀수 있는 열쇠가 바로 송학동고분군에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4~6세기 소가야양식 토기문화를 공유하는 소가야권의 고분문화는 다른 어떤 가야권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지역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소가야권의 3대 고분군인 산청 중촌리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며 독특한 고분문화를 전개해 간다.

산청 중촌리고분군은 목곽묘 단계에서 대가야계 위세품인 단봉문환두대도가 출토되고, 봉토분 축조단계에는 제방상성토기법, 호석, 다량의 석재 성토재 등 가야권에서 가장 먼저 봉토분이 축조되는 대가야 고분 축조기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삼가고분군 묘제와 봉토 축조, 대가야 석실 축조기법의 관련 아래 오랜 기간 고분군을 조영해왔으며, 남강 수계를 통한 대가야와 소가야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천 삼가고분군은 소가야권 고분군 중 가장 오랜기간 가장 많은 봉토분이 축조된 고분군이다. 다곽식의 구조로 봉토를 되파서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하거나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봉토를 확대해 나가는 독특한 축조방식을 이용하였다. 고분 배치의 매장규범은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에 영향을 주었고, 봉토 증축 방식은 합천 창리고분군과 대가야 최고 지배집단 묘역인 지산동고분군의 하위 고분 축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봉토 축조기법에서는 대구형석축, 목가구구조 등 아라가야 고분 축조기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가장 외곽요소가 강한 곳으로 분구묘(통영 남평리 10호분), 매장묘 배치(삼가고분군), 잠형주구·1B호분 석실(왜), 표형분(신라), 마구·토기(대가야·왜·신라)의 영향이 확인된다. 축조기법의 특징으로는 점토블럭을 성토재와 구획재로 널리 사용하였으며 묘역정지 시 전면에 걸쳐 점질토를 깔거나 선대 무덤을 파괴하지 않고 봉토를 축조하는 매장풍습이 보인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가야, 마한, 신라, 왜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소가야는 가야권 중 가장 조사·연구가 미진하다. 소가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활발한 발굴조사와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투고일 2020년 09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3일 ■

참고문헌

- 慶南大學校博物館, 『固城 蓮塘里 古墳群』, 1994.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합천 삼가고분군(Ⅱ지구)』, 2013.
- _____, 『산청 중촌리고분군 2차』, 2016.
- _____, 『합천 삼가고분군 정밀지표조사 학술연구용역』, 2018.
-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산청 중촌리(산206-7) 태양광발전소부지 산청 중촌리고분군』, 2019a.
- _____, 『합천 삼가고분군 24호분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2019b.
- 계명대학교박물관, 『고령 본관동고분군』, 1995.
- 高靈郡,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1978.
- 國立晉州博物館, 『固城 栗垞里 2號墳』, 1990.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固城 內山里古墳群Ⅰ』, 2002.
- _____, 『固城 內山里古墳群Ⅱ』, 2005.
- _____, 『固城 內山里古墳群Ⅲ』, 2007.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고령 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2016.
- 권오영, 『고대 성토구조물의 성토방식과 재료에 대한 시론』, 『한강고고』제5호, 2011.
- 김규운, 『考古資料로 본 5~6세기 小加耶의 變遷』, 慶北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 김지연, 『小加耶樣式 土器의 研究』,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 東西文物研究院, 『統營 藍坪里遺蹟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 조성부지내 유적-』, 2009.
- _____, 『陝川 三嘉古墳群Ⅰ·Ⅱ·Ⅲ·Ⅳ』, 2014.
- 東亞大學校博物館, 『陝川三嘉古墳群』, 1982.
- _____, 『陝川倉里古墳群』, 1987.
- _____, 『固城松鶴洞古墳群(本文·圖板)』, 2005.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固城 基月里 1號墳』, 2013.
- 大東文化財研究院, 『高靈 池山洞 第73~75號墳(本文·圖板)』, 2012.
- _____, 『高靈池山洞大加耶古墳群Ⅰ』, 2020.
- 류춘길, 『함안 도항리 6호분 축조기술에 대한 지질공학적 연구』, 『咸安 道項里 六號墳』,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 박승규, 『加耶土器 樣式 研究』, 東義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0.
- 申强浩, 『陝川 三嘉 古墳群에 대한 研究』, 慶尙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18.
- 新羅大學校博物館, 『山淸 中村里 古墳群』, 2004.
- 여창현, 『小加耶土器의 成立과 展開』, 慶南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 _____, 『부장유물로 본 4~6세기 합천 삼가고분군 축조집단의 특징과 변천』, 『嶺南

- 考古學』87號, 嶺南考古學會, 2020.
- 이춘선, 『고찰 2. 삼국시대 고분군 검토』, 『합천 삼가고분군 IV』, 동서문물연구원, 2014.
- 정인태, 『대가야 고분 축조기법 검토』, 『대가야의 고분문화 발표자료집』, 2015년 가야 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 조영현, 『대가야 묘제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대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야학술총서 8집,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 崔榮垓, 『加耶 多槨式 古墳 研究』, 慶尙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17.
- 하승철, 『외래계문물을 통해 본 고성 소가야의 대외교류』,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가야사학술회의17, 2011.
- _____,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 홍보식, 『V.고찰』, 『蓮山洞 M3號墳』, 釜山博物館, 2014.

Abstract

Based on Ancient Tombs Construction Techniques and Burial rites, The Characteristic of Ancient Tombs in So-gaya

Jung, In-Tae

The three ancient tombs in the So-gaya are the Jungchon-ri ancient tombs in Sancheong, Samga ancient tombs in Hapcheon, and Songhak-dong ancient tombs in Goseong.

Jungchon ancient tombs were influenced by the construction technique of Dae-gaya ancient tombs and relics such as the long sword with ring pommel.

Ancient tomb construction techniques include soil-building techniques, circular burial stone marker, and soil-building materials.

Later, the construction techniques of Samga ancient tombs and Goa-dong stone chamber were also influenced. It served as a link between Dae-gaya and So-gaya.

Samga ancient tombs is a multi-bracket system that extends the land horizontally and vertically.

It is possible to have affected the lower tombs in Dae-gaya ancient tombs.

The construction techniques of Ara-gaya ancient tombs, such as compartmental soil-building techniques and wooden structures, were influenced.

Songhak-dong ancient tombs are the most strongly married places, including the structure of tombs, tomb layout, ditch enclosure, junction, twin tombs and horse harnesses.

And clayblocks was used a lot in the construction of the clay.

Key Words : Sogaya, Construction technique, Burial rites, Burial norm,
Multi-coupled stone outer coffin Style